관계부처합동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26.(목) 10:30
(지 면) 2026. 11. 26.(목) 석간

행안부·국토부, 관계기관과 함께 도로살얼음 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 대전 신탄진휴게소에서 도로살얼음 위험성, 안전운전 집중 홍보
- 기상확인·감속운전·안전거리 확보·급조작 금지 등 4대 안전수칙 준수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1월 26일(목) 대전광역시 신탄진휴게소에서 겨울철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대전광역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철 도로살얼음의 위험성을 알리고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사고 건수는 1,035건으로 전년(646건) 대비 약 60% 증가해 선제적인 안전관리와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연도별 사망^{명}/사고수^{건} : $^{'21년}$ 22/1,204 → $^{'22년}$ 23/1,042 → $^{'23년}$ 12/693 → $^{'24년}$ 12/646 → $^{'25년}$ 12/1,035

이날 캠페인에서는 휴게소 이용객과 운전자를 대상으로 결빙 취약구간과 도로살얼음의 위험성을 안내하고,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4대*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 ▲운행 전 기상·교통 정보 확인 ▲결빙 취약구간 감속운전 ▲급제동·급가속·급핸들 조작 금지 ▲안전거리 확보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겨울철 도로살얼음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를 지속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여 교통안전 수칙이 일상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도 관계기관과 함께 도로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구간 안전관리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겨울철 도로살얼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결빙 취약구간에서는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은 “도로살얼음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운전자가 위험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결빙 취약구간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전광표지(VMS)와 길도우미(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겨울철 도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이일령 (044-205-5230)
		담당자	사무관 최회동 (044-205-5236)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책임자	과 장 최아름 (044-201-3909)
		담당자	사무관 박준수 (044-201-39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